

프로 트레이더 교과서

미녀53



소개글

프로를 위한 매매 매뉴얼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체득하여 주식판의 타짜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행함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목차

1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4
2	확률을 계산하는 법	6
3	돈 관리를 하는 법과 마인드 관리	8
4	타임 프레임	9
5	진입은 두 단계로, 청산은 과감하게	10
6	다양한 시장을 관찰할 것	11
7	추세를 쉽게 포기하지 말 것	13
8	지지와 저항	15
9	주가 버블의 형성 원리	18
10	추세 매매의 법칙	19
11	기술적 분석의 올바른 접근	20
12	수급의 해석	22
13	파생시장의 기술적 분석	24

들어가며

대중을 대상으로 팍스넷에 썼던 글과 달리 이 글 목록은 프로 트레이더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디 원하시는 성공을 거머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앎이 그렇지만 트레이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지식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고 한 걸음 나아가 응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실천은 깊은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꾸준한 훈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더로 시장에 존재하는 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은 시세의 변동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시세의 변동이 없다면 수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세의 변동은 손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시세의 변동 = 수익의 가능성 = 손실의 가능성

시세의 변동이 클수록 수익의 가능성과 손실의 가능성이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리스크와 수익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 시세의 변동이 일어나야 하고
- 그것이 유리한 방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시세가 완전히 임의적으로 움직였다면 트레이딩은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요행을 바라는 행위 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나 시세는 추세를 만드는 구간이 있기에 추세를 판단하여 그 방향으로 베팅하면 잃을 확률보다 돈을 딸 확률이 커질 겁니다.

트레이딩은 따라서 확률 게임입니다.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트레이딩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거죠.

확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매매해야 하며, 일관성 있게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확률이 마법을 부릴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확률이란 확실성과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확률에 베팅했다고 해도 본인의 바램과는 다르게 시세가 움직일 수 있으며 트레이더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실성을 원한다면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됩니다.

트레이더는 과거에 얽매어서는 안됩니다. 어제 돈을 잃은 것은 오늘 매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트레이더는 그저 매순간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할 뿐이며, 손실은 제한해야 합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되 평균 손실보다 평균 수익이 크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수학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실패하는 이유는 손실을 용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평가 손실을 실제 손실로 받아들이지
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레이더의 바램이 무엇이 되었든 평가 손실은 실제 손실입니다. 그리고 평가 손실이 평가 수익으로 바뀌는 것은 희망일 뿐입니다.
희망은 때로는 현실화되지만 프로 트레이더는 결코 희망에 기대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절매를 했는데 결국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매매라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더 큰 손실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끝없이 평균을 갱신하고 다시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이것이 시세의 법칙입니다.

현재 시세가 평균 위에 있을 때 시세는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이며,
현재 시세가 평균 아래에 있을 때 시세는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평균의 기간 값은 5일, 20일, 60일, 120일, 그리고 200일입니다.

이 기간 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는 평균에서 멀어질 수록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진입은 언제나 평균과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평균과 먼 곳에서 진입을 한다면 선불리 평균 회귀에 베팅해서는 안됩니다. 시세는 결국 평균으로 회귀함은 분명하나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평균과 먼 곳에서 베팅을 하려면 평균과 더욱 멀어질 것에 베팅하는 것이 옳으며 이 경우 작은 하락에 포지션을 청산하면 후회할 일이 많아 집니다. 방향이를 길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평균 회귀에 꼭 베팅을 해야했다면 변곡점이 확인된 후에 할 것이며 짧게 먹고 나와야 합니다.

시세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상승에 베팅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꾸준히 오를 때는 날마다 매매하는 것보다는 평균값 위에서 지속 홀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승해오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야 하며 격렬하게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하나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가 많았던 가격 구간에서는 기존 추세가 전환되기 쉬우며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횡보하여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지션을 홀딩하기 가장 유리한 구간은 과거 거래가 많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지지선에 가까울 수록 시세는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
저항선에 가까울 수록 시세는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 모든 것은 확률이니, 시세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현금은 트레이더의 총알입니다. 마구잡이로 쏘다보면 진정한 표적이 나타났을 때 쓸 총알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체 자산이 천만원이면 여러분은 한번의 거래에서 50만원 이상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베팅금액은 15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매매당 리스크 수준을 5%로 제한하고 베팅금액은 15% 정도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손실제한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스스로 한달 동안 트레이더 정직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펀드 운영자고 밑에 고용한 트레이더가 있는데, 그 트레이더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용주로서 그 트레이더의 운용자금을 키우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대함이 트레이딩 사업을 망하게 하는 대표적 이유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트레이더별로 리스크 매니저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트레이더는 자신의 일을 즐겨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즐길 수 없는 수준으로 베팅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세와 싸우지 마세요. 시세가 움직이는 구간에서만 베팅하는 것이 트레이더입니다. 반면 투자자는 시세 변화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스팔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가는 돈 버는 차티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차티스트는 돈 버는 기본적 분석가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진영에서도, 기술적 분석의 진영에서도 하수와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가 돈을 버는 거고 하수가 돈을 잃는 것입니다. 시장 참가자의 다양성이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일단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제 글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트레이더가 되세요. 시세의 흐름을 포착해서 이익을 얻으면 트레이더는 할일을 다 한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철학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트레이딩만큼 재미있는 게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트레이더는 자신에게 맞는 타임 프레임을 찾아내야 합니다.

스캘핑을 할 것인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며칠 동안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스윙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기 이상의 추세를 먹는 포지션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겠죠.

승률은 일반적으로 단기 타임 프레임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잦은 매매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둘째, 먹을 수 있는 파동의 빈도와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데이 트레이딩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은 오버나잇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점은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선물과 옵션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갭업과 갭다운을 당하면 특히 옵션의 경우 반대 포지션에 있는 트레이더는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무엇보다 프로 트레이더는 매일 꾸준히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만 돈을 버는 전략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파동이 나오는 시장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시세를 거래하는 데이트레이딩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실제 대형 투자은행, 증권사 등에서 일하는 전문 딜러들도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자산의 운용 재량권이 큰 헤지 펀드 매니저라면 소신껏 중기 이상의 추세추종 전략을 따르기도 하지만 자산의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지 않다면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죠.

타임 프레임에 따라 운용 전략에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중장기 추세를 존중해야 하는 점은 어느 타임 프레임이나 변함이 없지만 타임 프레임이 작아질수록 수익은 조금씩 짧게 끊어가야 합니다. 꾸준하게 적지만 많은 수익을 쌓아가고 손실은 정해진 한도에서 끊어내는 것이 롱런하는 데이트레이더의 비결입니다. 물론 언제나 매매당 평균 수익이 평균 손실보다 커야 합니다.

주봉 이상 차트에서 거래를 하면 추세추종 전략이 아주 잘 먹혀들어갑니다. 자산 변동성에 대한 헤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추세추종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데이트레이딩으로 작은 수익을 내면서 생활비를 벌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추세를 거래하면서 자산을 레벨업시키는 것입니다.

월급쟁이가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듯, 트레이더가 작은 수익만으로 크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계 큰손들은 운용하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의 수익만 먹어도 천문학적 금액이 되고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차이를 먹기 위해 거래를 하지만 개미가 그러한 수익을 내서 언제 부를 이루겠습니까?

진입은 청산보다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진입은 보통 준비조건과 진입 트리거로 나뉘집니다.

총의 방어쇠와 비슷하게 2단으로 되어 있는거죠.

준비조건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평선이 수렴하는 것이 준비조건인 한 가지 예입니다.

진입 신호는 준비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실제로 매수나 매도를 트리거링하는 신호입니다. 이평선이 수렴된 상태에서 장대양봉이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에서 장대양봉이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진입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추세가 역행해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레이더는 일단 포지션에 진입하면 시작부터 수익이 나와 본전 컷으로 손절 라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자리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은 트레이딩 컷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트레이딩 컷이란 처음에는 손절 라인으로 출발하여 본전 컷으로 올라간 후 추세가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청산 기준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표 중에 파라볼릭 지표가 있지만 파라볼릭은 타임컷 개념을 추가한 지표입니다. 마치 택시 요금 미터기 같은 거죠. 빨리 달리면 빨리 올라가지만 신호 대기 중에도 올라갑니다. 이것을 사용하느냐 여부는 트레이더에게 달렸으며, 타임컷은 대개 변동성만을 쫓 빼 먹으려고 할 때 유용합니다. 중장기 추세를 먹으려고 하면 파라볼릭은 조기 청산하게 되는 결과를 흔히 가져옵니다.

청산 전략은 그 외에도 상들리에 청산, 요요 청산이 있습니다.

상들리에 청산이란 매수 포지션 기준으로 최근의 최고점 대비 일정 비율 하락하면 청산하는 것이고 요요 청산이란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청산하는 것입니다.

단타를 할 때 시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련 없이 청산하는 것을,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타임 컷이라고 합니다.

최대 보유바수를 애초부터 지정하는 것도 타임 컷의 일종입니다.

목표 수익 청산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수익에 도달하면 청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타를 칠 때 유용합니다. 중장기 추세추종에서는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므로 목표 수익 청산은 큰 파동을 놓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늘 다양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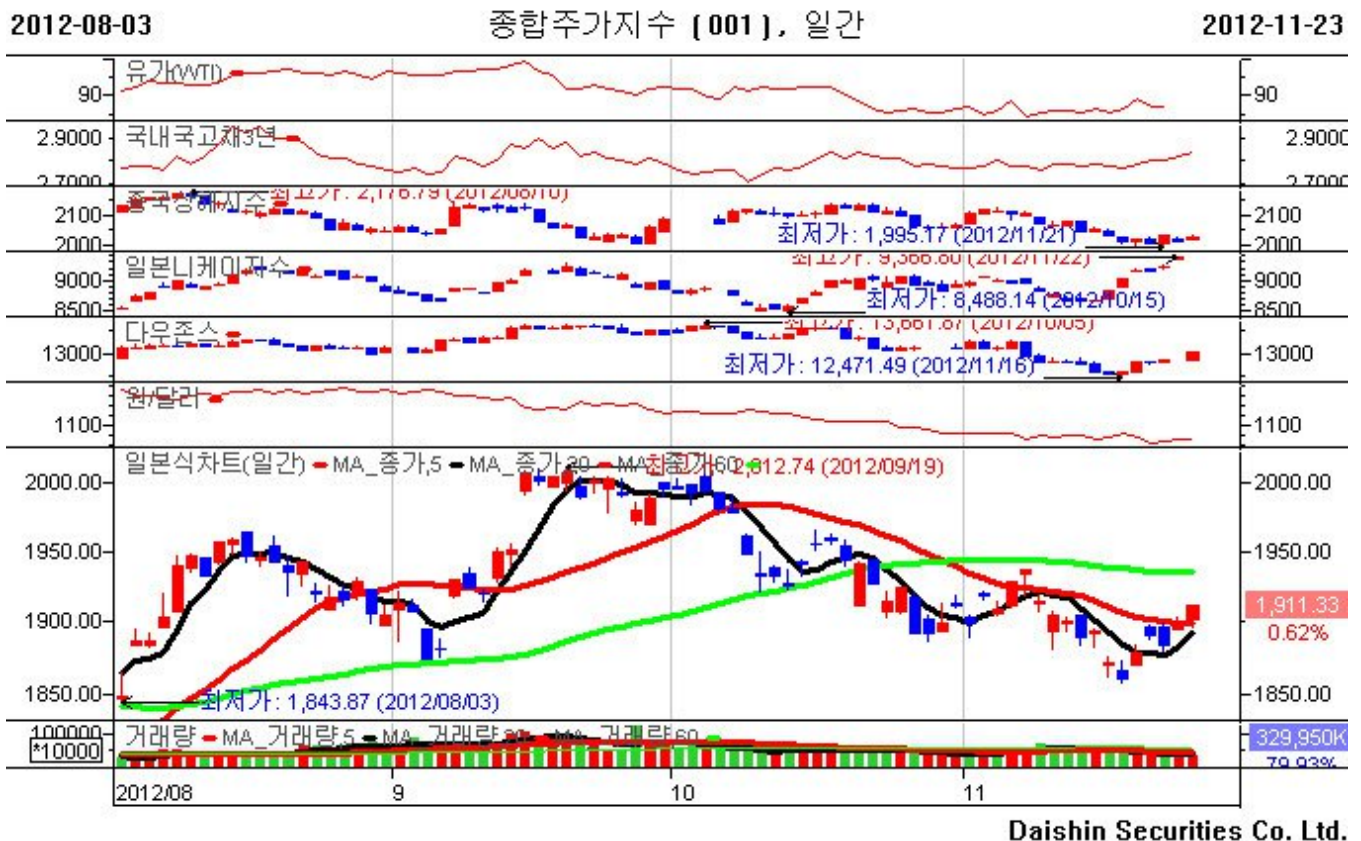
저는 선물을 주로 거래한 선물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우, 나스닥, 니케이, 상해, 채권금리, 원/달러 환율, 유가 차트를 동시에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하다가 보면 어느 두 시장이 동조화되거나 거꾸로 가는 국면을 접하게 되고 이를 트레이딩의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물을 하는 트레이더라면 종합주가지수 차트와 업종 지수 차트는 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주도업종과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을 매와 같이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가 보면 시세는 저절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간 분석을 아마추어 개미들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 트레이더라면 결코 큰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프로 트레이더가 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장을 관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각종 매크로 지수와 자신이 거래하는 시장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환율과 주가의 관계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보면 동조화되거나 거꾸로 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이를 이용해서 진입하거나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추세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니깐요.

추세는 대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꺾었다고 생각해도 다시 재개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 쉽게 추세의 전환을 예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보통 60MA까지는 추세에게 기회를 줍니다. 60MA에서 튕겨 올라가면 믿어보는 거죠. 하지만 60MA까지 뚫고 내려가면 일단은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곧바로 상승세 -> 하락세 전환을 예단하기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먼저 고려합니다.

저는 추세를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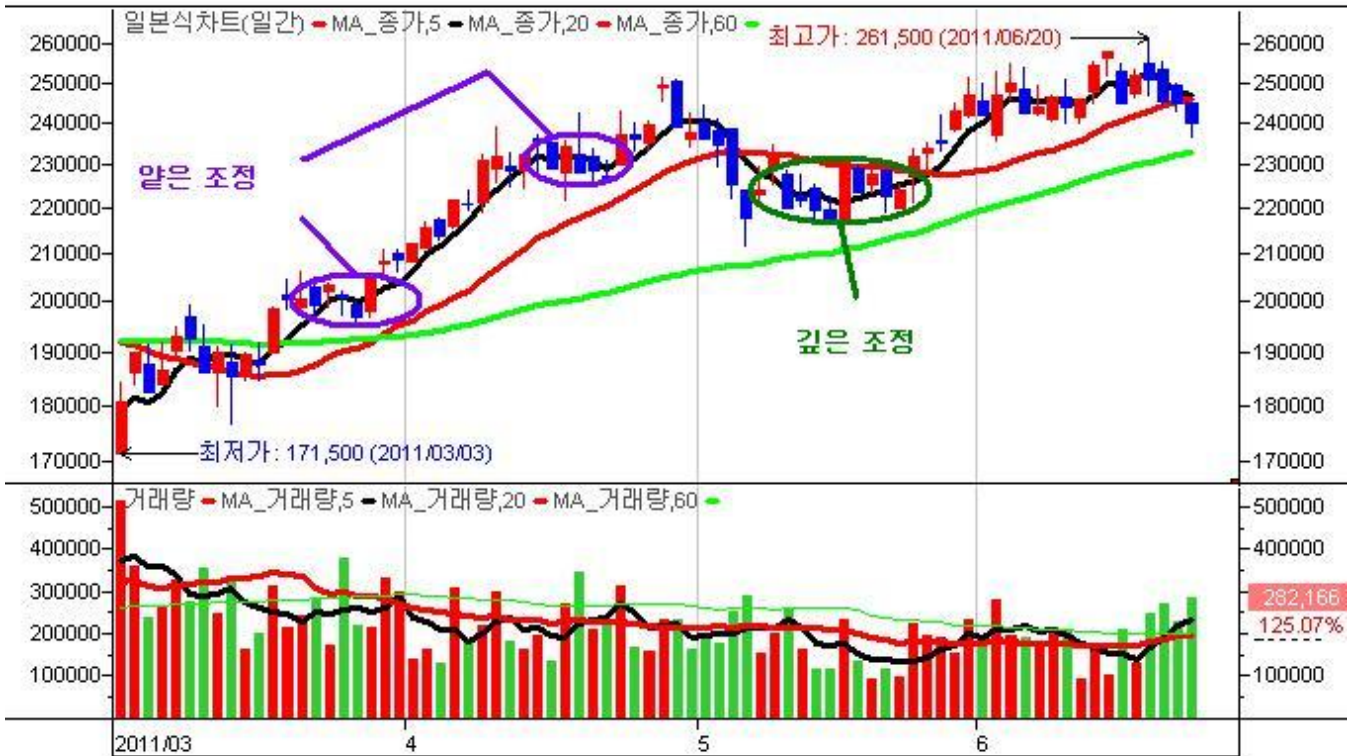
일봉 차트 상에서 5MA를 타고 달리는 랠리 A, 주봉 차트 상에서 5MA를 타고 달리는 랠리 B, 그리고 월봉 차트 상에서 5MA를 타고 달리는 랠리 C가 그것입니다.

저는 조정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5MA-20MA 사이 구간인 제1조정 구간이고, 다른 하나는 20MA-60MA 사이 구간인 제2조정 구간입니다.

시세가 제1조정 구간에서 튀어올라가는 것을 얇은 조정이라고 부르고, 제2조정 구간에서 튀어올라가는 것을 깊은 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얇은 조정과 깊은 조정에서 베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추세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Daishin Securities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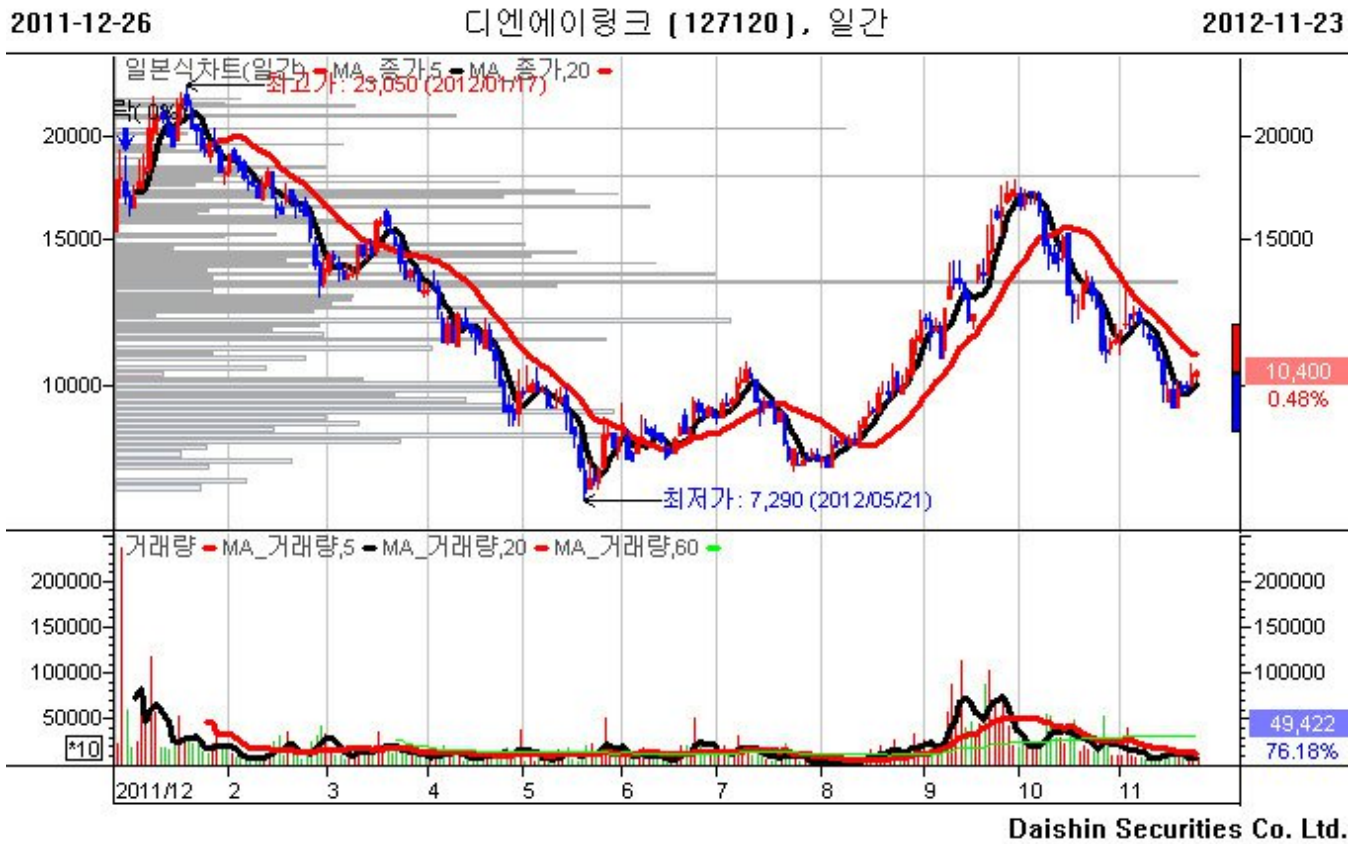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은 지지와 저항 영역을 아는 것입니다.

시세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매듭 사이를 이동합니다.

과연 지지와 저항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한 마디로 답하자면 과거의 매매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거에 더 많은 이들이 매매했던 가격대일 수록 지지와 저항이 강합니다.

저는 매물대가 지지와 저항의 정체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8-11-27

메가스터디 (072870), 일간

2012-11-23



Daishin Securities Co. Ltd.

2008-11-27

삼성증권 (016360), 일간

2012-11-23



Daishin Securities Co. Ltd.

매물대 분석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물대가 아래에 있을 때는 가급적 매물대와 가까운 곳에서 매수 진입을 할 것이며, 매물대가 위에 있을 때는 가급적 매물대와 가까운 곳에서 매도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기대수익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뚫릴 때는 뚫리는 방향으로 따라가되, 지지와 저항으로의 되돌림을 기다렸다가 올라타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선이 아니라 면입니다. 가격 구간입니다. 선으로 오인했다가는 볼 트랩이나 베어 트랩에 걸리기 쉽습니다.

몇 가지 대중적인 오해를 말씀드립니다.

흔히 믿고 있듯,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용하는 듯 보이는 구간을 잘 살펴보면 과거의 매물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 굳이 5MA, 20MA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전 고점, 전 저점은 그 자체로 지지와 저항이 되기보다는 그러한 변곡점에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알아야 합니다.

오래 동안 횡보한 가격 구간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 강력한 지지나 저항을 우군으로 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는 경쟁(competition)과 집단 행동(herd behavior)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런 원리가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시세를 만듭니다.

시장에 호재가 발생하면 매수자는 일시에 매수하려고 달려들며, 시장에 악재가 발생하면 매도자는 일시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경쟁은 경매 상황을 불러일으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쏠림 현상이 버블과 역버블의 1차 형성 원인입니다. 쏠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그 이후 매물 공백 현상으로 이어져 반대 방향으로의 급격한 되돌림을 수반하는데 주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동성을 띠니다. 거래량은 변동성이 확대될 때 증가하였다가 그 후 되돌림이 일어나면서 감소합니다.

버블과 역버블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추세추종 트레이더의 동조 행위로, 시세가 시세를 부르는 현상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버블과 역버블의 2차 형성 원인입니다.

매수 경쟁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쏠림 현상을 통해 추세의 시작을 가능하고 주가 되돌림을 기다려 진입하는 것이 여러 모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매수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자의 비율이 높을 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은 추세를 따라가기 어려우며 잦은 속임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추세를 따라가는 방법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기 등락이 언제나 수익 실현의 욕구와 손실 회피의 공포 사이를 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명분과 테마가 버블의 3차 형성 원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화된 실적은 상승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후 턴어라운드 가능성, 신기술 개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 등등 모두 시장 참가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되돌림에서 또 매수하세요.
가다가 조정을 줄 때마다 매수하고 깊은 조정을 주더라도 추가 매수하세요.
이것이 돈을 버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확률에 베팅하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독립적입니다. 언제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재 자리에서 확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값의 방향은 위인가, 아래인가?
시세가 평균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시세가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에 근거해 확률을 계산하여 베팅할 뿐, 현재 계좌에 평가 손익이 베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위로 매물대가 없는 시장에 베팅하세요.
남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폭락 후 이평성 역배열 시장에는 관심을 끄세요.
이런 시장은 상승하기 전에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내야만 합니다.
이런 시장에 베팅하는 것은 낮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확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높은 확률에 베팅해도 돈을 잃을 수 있고, 낮은 확률에 베팅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확률에 베팅해서 번 돈은 독이 됩니다. 나쁜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나쁜 습관은 낮은 확률이 예측하는대로 여러분의 계좌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추세가 꺾이면 평가손익에 관계 없이 물량을 털어버리세요.
그 다음에는 횡보장이 올 것을 예상하고 선불리 시장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세가 꺾이는 것은 물량 분산을 통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상승파동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파동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상승-조정 파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세에서는 조정에서 매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세가 어느덧 고공권에 이르러 거래량 실은 장대음봉의 빈도가 높아지면 분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세가 바뀌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의 시세 움직임이 상승장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승은 꾸역꾸역 일어나지만 하락은 단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더 빠른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의 변동성 또한 큼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는 더욱 대범해야 하며 더 재빨라야 합니다.

주가 변화는 매수, 매도자에 의해 일어납니다. 주어진 호가에서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많으면 호가가 올라가고 그 반대면 내려갑니다. 물론 최종적인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은 같습니다. 누군가가 산 주식은 누군가가 판 주식이니깐요.

시장에는 너무도 많은 참가자들이 있고 각 참가자들의 매수, 매도 이유는 다양하므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주가 변화의 이유를 샅샅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박 아무개가 주식을 왜 샀는지, 김 서방이 주식을 왜 팔았는지 우리가 알길이 없죠.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보이는 통계적 성향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고 군집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이즈 트레이더의 매수와 매도가 서로를 상쇄한다고 가정하면 남는 것은 상쇄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우리는 이 상쇄되지 않는 성분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의한 매매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에는 언제나 정보를 먼저 선점하는 집단이 존재하여 시장에 호재가 있으면 미리 매집하고, 악재가 있으면 미리 물량을 털어버린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결국 시장 내에 퍼져서 대중 운동으로 번지게 되고 그 결과 추세가 나타나는데, 기술적 분석가는 차트 속에 이러한 정보 선점 집단의 자취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의 과거를 보면 이러한 가정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학문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의 기계적 적용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구현된 차트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기계적 법칙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통계적 성향을 추출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기술적 분석의 요소는 수급의 분석입니다.

바닥권에서 장대 거래량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처럼 많은 주식을 샀는가(혹은 팔았는가)?

다수 대 다수의 거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수 대 다수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거래는 기술적 분석가에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소수의 거래자가 다수의 거래자로부터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면 이것은 호재를 미리 접한 일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시 격언에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주식을 천억원어치를 샀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매일 분할해서 조금씩 샀다면 그 자취를 감출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큰 거래량이라는 자취를 남길 수 밖에 없겠죠.

결국 이러한 거래 기록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엄청나게 물량 매수를 했다. 뭔가 호재가 있나봐."

혹은,

"야, 누군가가 물량을 엄청나게 털어버렸네? 무슨 악재가 있는게 아닐까?"

즉, 시장에 모종의 기대감이나 불안이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시세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현대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옛날이라면 조금은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조금씩 이러한 단서를 기초로 시장에 참가하는 추종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거래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주가는 들쭉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요인이 없다면 주가는 대중이 합세함에 따라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요인이라 함은 대중 심리를 전환시키는 다른 악재나 반대 방향의 대량 거래를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선도세력의 대량 매매가 추종 세력을 만들어 시세를 부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세는 어디까지 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항선까지 간다고 봅니다. 대중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집단이므로 눈먼 장님이 지팡이 짚고 가듯 시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항선에 이르러 매도 물량이 출회하고 주가가 꺾이면 대중 심리도 따라서 꺾입니다. 특히 다른 선도 세력이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물량을 털어버리면 투심은 급격히 냉각되어 버리겠죠.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는 또다른 선도 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개미들아, 조금 더 가자!"

하면서 저항선을 뚫어버리게 되면 기존의 매도자가 반대 매매에 들어가면서 시세는 매수자의 심리를 복돋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주식시장은 그러나, 선도 세력이 하나가 아니므로 다양한 선도 세력 사이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른 반대 방향으로의 대량 거래가 연달아 나옴에 따라 개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거래 흔적을 통해 과연 누가 진정한 정보를 쥐고 있는 집단인지, 그러한 집단이 어떠한 거래의 흔적을 남겼는지를 파악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시장의 수급 상황과 정보의 발생을 거래 흔적을 통해 추리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기계적으로 선을 긋고 이것을 뚫으면 상승, 이것을 뚫으면 하락이라는 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기술적 분석의 성과는 트레이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던 와중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단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선도 세력에 의해 주가 방어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판단하면 너무 선부른 판단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시각은,

"주가가 바닥에 가까워졌겠구나."

정도일 것입니다.

주가가 일단 바닥권에 이르면 특별히 강력한 호재가 없는 한 꽤 오래 동안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대개 이 시기에는 많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주가가 상승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에는 겁겁히 쌓인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상승해도 물린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주가를 다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을 지속하는 역배열 시장을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설사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매수하면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횡보하던 시장에 거대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면 악재가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가 메리트에 선도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시장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들쭉거리면 모종의 정보가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아직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호재가 소수 집단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것은 매도 물량의 소화 마무리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시장의 끓는 점에 도달한 것이죠.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억제했던 매도 물량이 갑자기 사라짐에 따라 매수세가 부각되면서 바닥권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장에는 활기가 불게 됩니다. 대중들은 이 주식이 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덩벼들게 되고 변동성 확대 국면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만약 이러한 시장 활성화가 진정한 호재 없이 나타난 것이라면 시세가 조금 고평가되는 순간 그것을 감지한 선도세력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투심은 다시 냉각되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 분석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화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듯, 확률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행태를 비판해왔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은 단일 세력이 아닙니다. 또한 분명 그들이 전체 집단으로써 정보 면에서 개미들을 앞서 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급 정보에는 언제나 뺑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개미들이 외국인 따라하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일부 작전 세력은 외국계 창구를 통하거나 홍콩이나 대만 등에 있는 국내 투자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개미들이 외국인이 산 줄 알고 따라 사면 그들은 초단타 작전으로 물량을 떠넘기고 사라집니다.

이런 정보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지 않으면 역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공짜 정보가 돈이 될리가 있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정보가 진성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뺑카와 진카를 구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런 정보는 혼란만 자초할 뿐입니다.

결국 수급의 해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도세력의 균형이 매수 쪽으로 쏠려 있느냐 매도 쪽으로 쏠려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결 강도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장대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소수의 거래자가 다수의 거래자로부터 물량을 매집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수 주문이 집중되어 여러 호가에 걸쳐 있는 매도 물량을 소화했다는 뜻이므로) 이러한 흔적이 반대 흔적보다 많으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후의 상승에 베팅해볼 수 있을 겁니다.

파생시장의 기술적 분석은 개별 주식의 기술적 분석과 다릅니다.

우선 선물 시장을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코스피200 지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200 지수는 수많은 종목들을 평균한 지수이므로 수많은 선도세력들의 매매 흔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을 분석하듯 수급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물 지수는 현재까지는 외국인이라는 선도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외국인들이 단일 세력이 아니고 데이 트레이딩 세력부터 스윙 트레이딩 세력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그들의 매수와 매도 근거를 추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매매를 결정하게 하는 대내외적 매크로 요인 또한 너무 다양하여 펀더멘털 분석을 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별 종목 시장보다 거래가 활발하며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파동도 훨씬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라면 선물 시장이 가장 궁합이 맞습니다.

사실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이전에 팍스넷에 올린 글들과 펴낸 줄서는 현물 시장에 여과 없이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근 방식과 마인드를 훈련하기에는 적합할 것이나, 제가 주로 선물을 거래했고 제가 가진 노하우의 대부분이 선물 시장에서 나왔다는 점을 여러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펀더멘털은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고 종목 선택의 고민에서 해방되면서 즐거운 트레이딩 게임을 하고 싶다면 선물 시장을 주 종목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물 시장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면 현물 거래와 굳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선물은 옵션과 달리 정직합니다. 1포인트의 움직임은 1계약당 50만원의 수익이나 손실을 유발합니다. 1포인트의 움직임 당 50만원의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선물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개미들이 현물시장에서 그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현물 시장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 파동을 먹기 위해 더 큰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선물 시장으로 오세요. 여기는 늘 파도가 넘실댁니다.

선물시장은 또한 수많은 선도 세력의 집합적 움직임을 반영하므로 조금 더 통계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이 먹혀 들어갑니다. 개별 종목과 같은 수급 분석을 할 수는 없는 대신,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 추세추종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에 적합합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으로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추세 파동의 빈도가 낮다는 점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원리와 방법이 모든 시장에 똑같이 먹혀 들어갈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과 종목은 각각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트레이더 교과서

블로그 찌질한 타짜 <http://blog.daum.net/beauty53x>

저자 미녀53

발행일 2012.11.26 12:48:30

 블로그